

柱가 있고 그 앞에 石燈臺石으로 짐작되는 麗代의 石物이 있다. 冥府殿(正面三間 側面三間) 마진쪽의 建物에 注意하려면 殿前의 또 다른 幢竿支柱를 發見하게 된다. 大雄殿을 向하여 다시 돌아서서 石階에 올라서면 隅石端에 조그만 石龜를 보게 된다. 築臺에 올라서면 大雄殿隅柱前에 配置되어 있는 石獅子가 눈에 뜨인다. 大雄殿을 떠나 圓通殿을 지나 北行하면 影閣이 보이고 그 앞에 碑身이 半破된 慧炤國師碑가 보인다. 이 일대는 百蓮庵의 屈地라고 하는데 碑는 影閣石臺下에 있다. 늘씬하게 생긴 龜趺(下台石長八·三尺, 幅六·七五尺, 高六寸 龜頭高地上으로부터三·二尺 頭幅一·九尺)가 龜甲文도 또렷하게 安坐하고 있다. 龜中背에 碑坐(長五·四五尺 幅一·九五尺 側高〇·七尺)가 있고 거기에 碑身(高七·九尺 幅四·二五尺)이 豎立되어 있는데 어느때 破損되었는지 半破되었고 上半身과 螭首가 倒置되어 있다. 碑身側面에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長身의 龍과 唐草文이 鐫出되어 있다. 螭首(高二·五尺 長六·二五尺 厚二·七尺)의 樣式은 麗代 다른 것들과 同類이다. 碑文은 楷書로(字徑八分)「利朝 哲破有通化無著靈敏淵奧具行定覺道首都統論慧炤國師碑銘并序」라고 하고 「朝議大夫尙書左僕射參知政事柱國兼太子少保臣金顯奉 宣撰」하고 「宣德郎殿中丞騎都尉賜緋銀魚袋臣閔賞濟奉宣書并篆書額」하였다고 하였다. 그 내용은 金石總覽(上卷八三頁)에 記載되어 있다. 碑는 高麗文宗十四年庚子(一〇六〇年)에 세워진 것인데 이는 指定된 高麗碑石中 最古의 것인 「菩提寺大鏡大師塔碑(太祖二十一)」보다 一二二年 뒤진 것이다.

寺內에 保管되어 있는 月山人替翁이 撰한 「七賢山七長寺事蹟記」(雅正十一年癸丑)와 輿地勝覽(卷八竹山縣佛宇條)등에 「禪王九년에 倭寇가 闖入內地하므로 忠州開天 寺所藏의 史籍을 이 절로 옮기어 保管하였다」는 그 史籍의 保管處를 調査하여 보았으나 밝혀지지 못하였다.

大雄殿內의 銅鍾(高三·九尺)은 「乾隆四十七年壬寅十一月」의 作品이다. 圓殿通前破塔(本誌二卷七號拙稿參照)과 石龜·石獅·浮屠·臺石·幢竿支柱等에 關하여는 以後로 미루고 省略하기로 한다.

以上으로 그 大要를 紹介하였다. 그 중 鐵製幢竿과 慧炤國師碑는 마땅

히 指定하고 復原하여 完形으로 保存하였으면 좋겠다. 安城郡二竹面의 佛蹟址는 注目되어야 된다고 強調한 바 있으나 아무런 調査가 進捗되어 있지 못해 遺憾이다. 그 중 七長寺는 詳細히 調査되어야 할 遺蹟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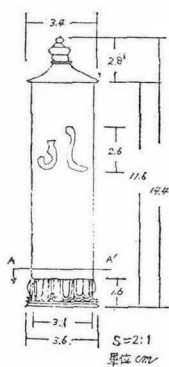
資料

新羅金銅經筒의 新例

黃 壽 永

지난 九月경 경주부근의 塔址(?)에서 발견되었다고 할뿐인데 身蓋가 모두 圓形으로 鑄造된 것이다. 圓筒은 下徑三·六cm 上徑三·一cm 全高十四·四cm로서 下端에 複蓮八瓣이 둘러있고 그 中腹에 孔一字가 線刻되어 있다. 뚜껑은 아담한 曲面을 이루고 頂上에 이르러 相輪形을 一鑄하였는데 高二·八cm 徑三·四cm 鍍金良好하며 表面一部와 內面全部에 靑 녹이 덮여 있다. 新羅下代 九世紀頃의 經筒으로 推定되는 바 기왕의 出土例를 알 수 없다. 伴出物은 未詳인 바 이외에 破壞된 一個가 있었다고 한다.

(九月十五日 調査 서울에서)



考古美術 卍—스